

KIA 임기영·장현식·서건창 “내 가치는 얼마?”

‘V12’ 주역 마당쇠 장현식·고향서 부활 서건창·‘전천후’ 임기영
프로야구 FA 시장 나와... ‘FA 최대어’ SSG 최정 등 20명 공시

프로야구 FA(자유계약) 시장이 6일 막을 올린다. KBO가 5일 2025년 FA 승인 선수 20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FA 승인을 받은 이들은 6일부터 해외 구단 포함 모든 구단과 계약을 위한 교섭에 나설 수 있다. 앞서 KBO는 지난 2일 FA 자격을 얻은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10명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20명이 FA 승인을 받았다. KIA에서는 투수 임기영과 장현식(이상 B등급), 내야수 서건창(C등급)이 FA 시장에 나온다. 이번 명단에 오른 선수 중 ‘최대어’는 KBO리그 통산 홈런 1위(495개)에 빛나는 SSG의 프랜차이즈 스타 최정이다. 최정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FA다. 최정은 2014년 11월 4년 86억원이라는 역대 FA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SSG의 전신 SK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6년 최대 106억원’에 다시 한번 FA 계약을 했다. 최정은 세 번째 계약과 함께 포수 양의지가 NC와 두산과의 두 차례 계약을 통해 작성한 ‘277억원’을 넘어 역대 KBO리그 2년 계약 최고 총액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허경민도 눈길을 끄는 이름이다. 허경민은 2021시즌을 앞두고 7년(4+3) 최대 85억원에 두산과 FA 계약을 이뤘다.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뒤 팀에 잔류하면 2025~2027년 3시즌 동안 20억원을 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던 허경민은 FA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포지션은 투수다. 선발 요원으로 LG 우완 최원태와 KT 사이드암

임상백이 눈길을 끈다. 불펜진에도 알짜배기 선수들이 있다. 롯데의 마무리 김원중과 구승민이 동시에 시장에 나왔고, NC 마무리 이용찬도 있다. 불혹의 나이에 올 시즌 홈드왕(38개)에 등극한 SSG 노경은도 FA를 선언했다. 많은 팀이 불펜 대란으로 고전했던 만큼 KIA의 ‘마당쇠’ 장현식의 인기도 뜨겁다. 장현식은 올 시즌 75경기에 나와 75.1이닝을 소화하면서 3.94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승 4패 16홀드를 기록, KIA 통합 우승의 수훈선수가 됐다. 150km의 강속구를 보유한 장현식은 연투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 뜨거웠던 2023시즌과 달리 힘든 2024시즌을 보냈던 임기영도 ‘재수’ 대신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는다. 아쉬운 시즌은 보냈지만 임기영은 지난해 64경기에 나와 82이닝을 평균자책점 2.69로 막으면서 실력을 보여줬고, 선발은 물론 불펜도 가능한 ‘전천후 자원’이라는 부분도 강점이다. 올 시즌 고향팀에서 부활에 성공한 서건창도 FA 자격을 행사했다. 은퇴를 선언한 박경수(KT), 김강민(한화)과 함께 김재호(두산), 오재일(KT), 서진용(SSG), 진해수(롯데), 이재원(한화), 심창민(NC), 최주환·이용규(이상 키움) 등 10명은 FA를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총 20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되면서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연봉·평균 옵션 금액을 바탕으로 해 A등급(구단 연봉 3위 이내·전체 연봉 30위 이내), B등급(구단 연봉 4~10위·전체 연봉 31~60



FA 시장에 나온 KIA 타이거즈 장현식, 서건창, 임기영(오른쪽부터).

〈KIA 타이거즈 제공〉

위), C등급(구단 연봉 11위 이하·전체 연봉 61위 이하)으로 나뉘며, A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20명 보 호선수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원소속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B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25명 보호선 수 1명을 보상하거나 전년도 연봉의 200%를 지급하고, C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50%만 보상

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선수 중 A등급은 최원태, 김원 중, 구승민 등 3명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실책 1위 구단’ 오명 벗는다

KIA, 마무리캠프에 일본 수비 강사 초빙

‘수비’를 2025시즌 과제로 설정한 KIA 타이거즈가 마무리캠프에 미즈마타 타이키를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 미즈마타 타이키는 2010년 오릭스를 통해 일본 프로야구(NPB)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니치를 거쳐 올 시즌 야쿠르트에서 뛰었다. 그는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감 있는 송구 능력을 바탕으로 내야 수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즈마타 타이키는 NPB에서도 인정 받은 수비를 바탕으로 KIA의 수비 강화에 역할을 할 예정이다. KIA는 올 시즌 팀 타율 0.301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화력을 바탕으로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면서 ‘통합우승’을 이뤘다. 공격에서 강점을 보인 KIA지만 수비는 약점으로 꼽혔다. 올 시즌 KIA는 146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실책 부문 전체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작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위 롯데 자이언츠보다 23개가 많았고, 최소 실책 1위인 삼성(81개)과 비교하면 무려 65개의 실책을 더 기록했다. 통합 우승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재계약에 성공한 이범호 감독도 “올해는 공격력 으로 많은 것을 커버했는데, 수비가 가장 신경 쓰인다.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시즌 우선 목표로 ‘수비’를 언급했다. 뜨거운 공격에 철벽수비까지 더해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 왕조 재건을 위한 시즌을 만들겠다는 게 이범호 감독의 구상이다. KIA는 유망주 중심의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수비 바탕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KIA도 “마무리캠프 기간 기본기를 다지는 등 젊은 선수들의 수비 기량 향상을 위한 것이다”며 인스트럭터 초빙 취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우승 기념 상품 오늘부터 예약하세요

티셔츠·모자·기념구 등 13종

2024 KBO 리그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우승 기념 상품을 출시하고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KIA는 5일 “우승을 기념해 1차 상품을 출시했다. 우승 티셔츠/모자, V12 후디/모자, 기념구 2종, 외판, 패넌트, 머플러, 아크릴 키링, 마그넷 등 총 13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출시된 1차 상품은 구단 온라인 티스토리어를 통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약 판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센틱 춘추점퍼, 패딩조끼, 모자 등 주요 어센틱 의류와 방한용품에 대한 3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2월 초에는 2차 우승 상품이 출시된다. KIA는 통합 우승 기념 유니폼/후디, 벽시계, 포토북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상품 구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단 티스토리 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골프 최종전 ‘흥미진진’

KPGA 장유빈 ‘전관왕’ 이룰까

투어챔피언십 7일 개막

우승 땀 상금·다승왕 등 석권 김민규·윤상필 등 역전 노력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대 우량주 장유빈(사진)이 개인 타이틀 석권이라는 위업에 도전장을 냈다. 장유빈은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 제주시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동·남 코스(파71)에서 열리는 KPGA 투어챔피언십(총상금 11억원)에 출전한다. KPGA 투어챔피언십은 시즌 최종전이다.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70명만 출전해 컷 없이 순위를 가린다. 올해 나름대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선수가 총출동하기에 왕중왕전이나 다름없다. 개인 타이틀을 가는데 이미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는 장유빈으로 확정됐지만, 프로 골프 선수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상금왕과 평균타수 1위(덕춘상), 그리고 다승왕의 주인은 이 대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을 거머쥔 장유빈이 상금왕, 덕춘상, 다승왕 등 모든 개인 타이틀을 석권하는 전관왕을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 장유빈은 10억4104만원의 상금을 쌓아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평균타수도 1위(69.53타)에 올라 있다.

다승 부문에서도 2승으로 김민규와 공동 1위다. 장유빈이 K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상금왕과 다승왕, 덕춘상은 가뿐하게 자신의 차지가 된다. 우승하지 못해도 상위권 성적이면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 지금까지 K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덕춘상, 다승왕을 모조리 차지한 사례는 2009년 배상문 이후 14년 동안 없었다. 장유빈을 5700만원 차이로 추격 중인 상금랭킹 2위 김민규는 상금왕과 다승왕에서 역전할 수 있기에 온 힘을 다 쏟겠다는 각오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억2000만원이라서 김민규는 우승 한방이면 상금왕과 다승왕(3승) 두 개의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올해 우승을 신고한 윤상필, 고관택 등도 우승하면 장유빈, 김민규와 함께 공동 다승왕에 오른다. /연합뉴스

KLPGA 윤이나 ‘3관왕’ 굳힐까

8일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

상금왕·대상 등 향방 ‘안갯속’ 박현경·박지영·김수지 등 경쟁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마지막 대회가 8일 막을 올린다. 8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파72·6788야드)에서 열리는 SK텔레콤·SK실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은 올해 KLPGA 투어 대미를 장식하는 최종전이다. 이 대회를 통해 올해 상금왕과 대상 수상자 등 주요 개인 타이틀의 향방이 정해진다. 먼저 올해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를 달리는 윤이나(사진)는 ‘3관왕 굳히기’에 나선다. 윤이나는 시즌 상금 11억9994만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11억2436만원으로 2위인 박현경

과는 약 7000만원 차이다. 시즌 최종전 우승 상금이 2억5000만원이고 준우승 상금은 9600만원이라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1위가 바뀔 수 있다. 11억264만원으로 3위인 박지영과 9억5220만원으로 5위인 김수지에게도 상금왕 가능성이 열려 있다. 10억5000만원으로 4위 황유민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나가는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 부문은 윤이나가 535점으로 1위, 박현경이 503점으로 2위고 박지영은 487점으로 3위다. 윤이나가 이번 대회에 포인트 추가를 하지 못하면, 박현경은 10위 안에 들어야 하고 박지영은 최소 2위를 해야 1위가 될 수 있다. 3관왕 도전에 나서는 윤이나는 “시즌을 시작하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다”며 “올 한해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마지막 대회에서 타이틀 순위가 뒤집혀도 행복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현경은 “올해 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며 “타이틀을 의식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대회를 치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